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11월호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반도체/IT/철강/조선, 자동차, 기후테크 및 순환경제, 식음료 등 5개 주제에 대한 ESG 트렌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11 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01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 Key Takeway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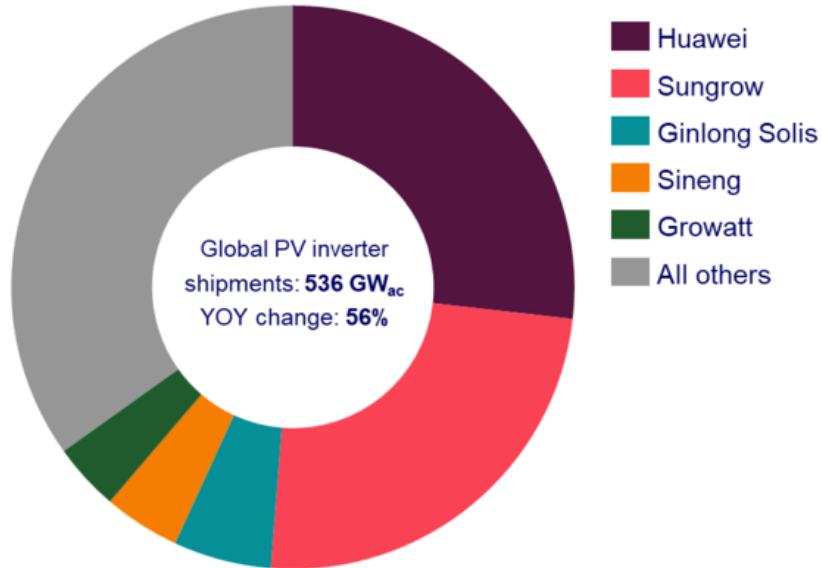
- 유럽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이유로 중국 자본과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중국 국유 전력망 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이탈리아 가스 운영사의 자국 가스 기업 인수 계획을 차단했고, 유럽의회는 중국산 인버터를 '고위험 공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미국 태양광 산업이 세제 혜택과 민간 투자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제조 설비와 저장 장치 등 전 밸류체인에 걸쳐 366 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주요 기업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전력생산은 전년 대비 36.4% 증가했다.

- 메탄 열분해가 새로운 청정 수소 생산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엑손모빌과 바스프가 미국에서 실증 플랜트를 구축 중이며, 일본과 유럽 기업들도 합성 메탄(e-methane)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 북미 배터리 산업, 정책 급변과 수요 위축에 연쇄 타격 가격보다 에너지 안보...유럽, 중국 기술·자본 의존에 선 그었다

Global PV inverter market share rankings by shipment, 2023



Source: Wood Mackenzie

글로벌 인버터 시장에서 화웨이, 선그로우 등 중국기업이 절반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Wood Mackenzie

유럽 에너지 업계를 둘러싼 중국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 월, 독일정부는 이탈리아 국영 가스 운영사 스남(Snam)의 오픈그리드유럽(OGE) 지분 인수 계획을 불허했다. 스남의 주요 주주 가운데 중국 국유 전력망 기업 국가전망공사(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독일 경제부는 외국인무역법에 따라 거래를 심사한 결과, 중국 자본이 독일 가스망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남은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독일 정부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스남의 OGE 지분 인수는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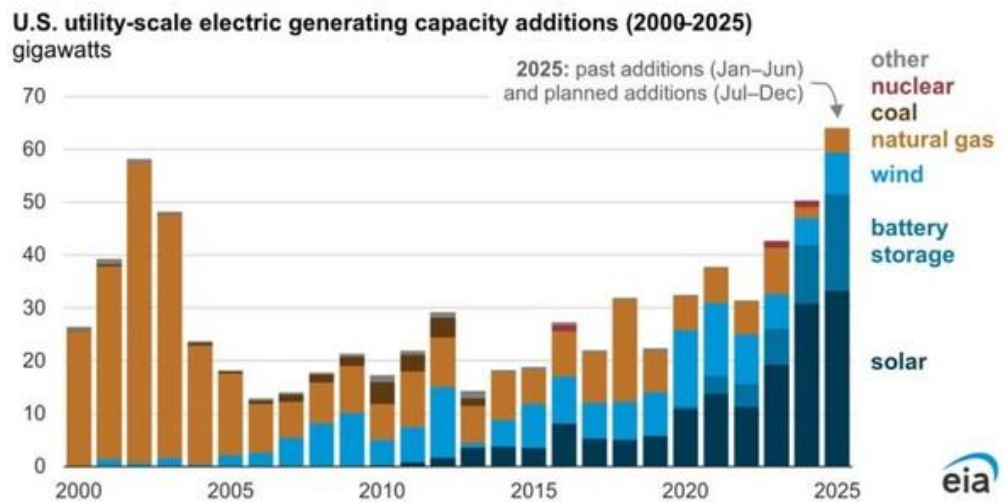
한편 유럽 의회에서는 중국산 인버터의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의회 의원 30 명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계 인버터 제조사를

‘고위험 공급자(high-risk vendor)’로 지정하고, 유럽 전력 인프라 접근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산 인버터가 유럽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유럽 내 비(非)중국계 제조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화웨이(Huawei), 선그로우(Sungrow), 굿위(GoodWe), 디이에이(Deye) 등 중국 기업들이 유럽의 태양광 인버터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이들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의 주요 리스크로 사이버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 기업의 인버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해, 외부 해킹이나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전력망 통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국은 이미 대응에 나섰다. 리투아니아, 체코, 독일의 사이버보안 기관은 중국산 인버터에 대한 경고 조치를 시행하거나 금지령을 검토하고 있다.

☞ [중국 지분 리스크에 예민해진 유럽...이탈리아 에너지망 ‘중국 변수’로 유럽 확장 좌초](#)

□ 미국 태양광, 다시 뜬다...투자·생산·주가 모두 반등



미국의 에너지원 별 유틸리티 규모 전력생산 증가 추이/EIA

미국 태양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연방 세제 혜택과 민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제조·설비·저장 등 전 밸류체인에서 성장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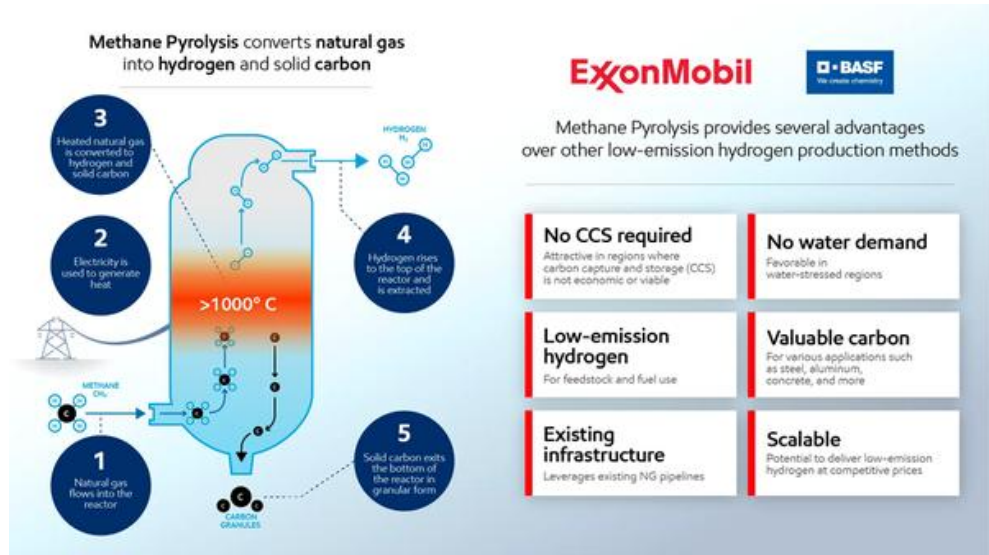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발표된 태양광·에너지저장(ESS) 제조 투자는 총 366억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 이 중 가동 중인 시설이 131억달러, 건설 중 92억달러, 개발 중 143억달러 규모다. 특히 모듈 생산능력은 8GW에서 60GW로 650% 증가했다.

투자 확대는 주식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는 S&P500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선런(Sunrun), 퍼스트솔라(First Solar), 넥스트파워(Nextpower), 솔라에지(SolarEdge)의 주가는 각각 77%, 39%, 120%, 133% 상승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세제 혜택 축소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으나 세액공제가 2032년까지 유지되면서 태양광 기업들이 실적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전력 생산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전체 전력의 9.7%를 차지했다. 태양광과 풍력을 합하면 미국 전체 전력의 18.8%를 공급하며, 화력·원자력 발전을 크게 앞질렀다.

[☞ **美 태양광·저장 산업, 제조 르네상스...세제 혜택이 공급망 되살려**](#)

□ 메탄 열분해, 수소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될까



엑손모빌과 바스프의 메탄 열분해 프로젝트 소개/엑손모빌

수소 산업이 정체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메탄 열분해(methane pyrolysis)' 기술을 활용한 메탄수소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메탄 열분해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그린 수소'(재생 수소)가 여전히 비용과 전력 사용효율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메탄 열분해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기술'로 평가된다. 메탄 열분해는 그린수소 대비 온실가스가 높지만 수소를 생산하면서 고체 탄소를 얻을 수 있고, 수전해 기술 대비 전력 사용량이 5~7 배 낮기 때문이다. 기존 천연가스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설비 전환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엑손모빌(ExxonMobil)과 바스프(BASF)는 메탄 열분해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텍사스주 베이타운에 플랜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플랜트는 연간 2,000 톤의 저탄소 수소와 6,000 톤의 고체 탄소를 생산하는 생산하며, 산업 규모에서의 기술 검증과 상업화 가능성을 시험할 예정이다.

일본과 유럽 에너지 기업들도 메탄 열분해 기술 상용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 일 프랑스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벨기에 TES, 일본의 오사카가스·도호가스·이토추는 공동운영계약(JOA)을 맺고, 미국 네브래스카에서

‘라이브오크(Live Oak)’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50MW 급 전기분해 설비와 바이오에탄올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연간 7만 5,000톤의 합성 메탄(e-methane)을 생산해 이를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2027년 최종 투자 결정을 거쳐 2030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IRA 이후 경쟁력 높아진 메탄 열분해...엑손모빌·바스프, 2000톤급 수소 실증 추진](#)

「 Editor's Comment 」

정책 변수와 시장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에너지 산업의 기조가 재편되고 있다. 각 부문은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구조 확립에 무게를 두며, 확장보다 규제 및 기술 검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11호

Monthly ESG Trend Report

02 반도체/IT/철강/조선

『 Key Takeway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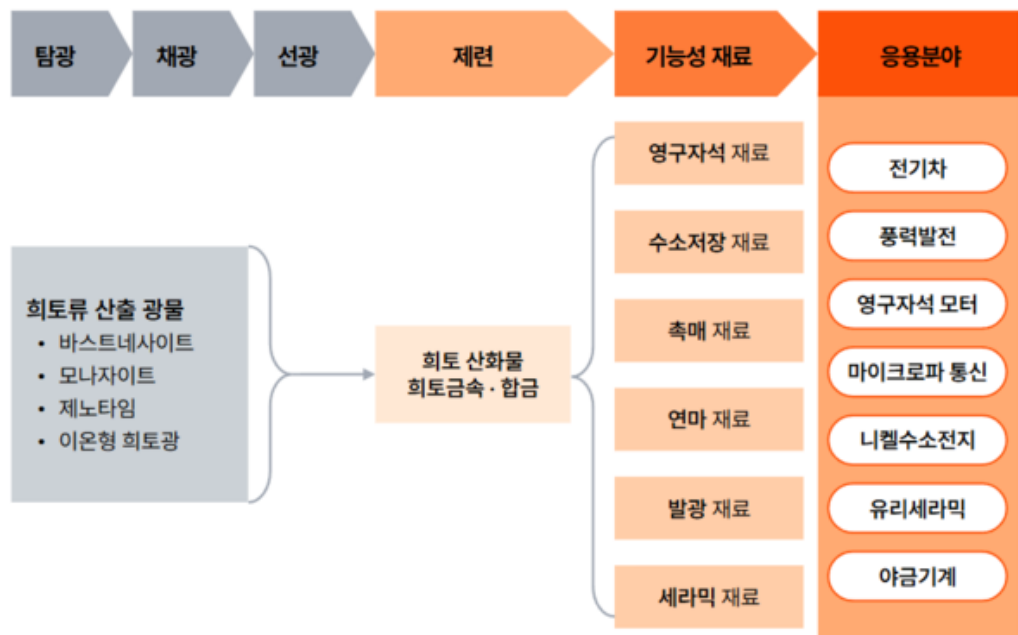
-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다만 통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해 반도체·EV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 레버리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CME 그룹의 전자거래가 중단됐다. 데이터센터 냉각 취약성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며 AI 인프라의 열·전력 부담이 다시 부각됐다.
- 중국 ETS가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규제 커버리지가 국가 배출량의 60% 수준으로 늘었다. 탄소 가격 상승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
- IMO의 탈탄소 규제가 1년 유예됐지만 글로벌 논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발주량 둔화 속에서도 친환경 선박 비중은 37%를 유지하며 LNG 중심의 브릿지 전환이 강화되고 있다.

□ 반도체 공정, 기술 고도화가 '지속가능성 역설' 불렀다

12 월 2 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에 대해 첫 '포괄허가(general licences)'를 발급했다. 로이터는 금력영자(JL Mag Rare Earth), 닝보원성(Ningbo Yunsheng), 종과삼환(北京中科三环) 등 일부 영구자석 기업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들 기업은 유럽·미주 완성차 업체와 공급 계약을 보유하고 있어, 포괄허가 적용으로 해당 지역 출하 일정이 조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규제 체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새 허가는 기존 통제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 월에 도입된 7 개 희토류 원소 수출 규제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그래파이트 등 전략광물 승인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며, 중국은 희토류 정제·분리 약 90%, 영구자석 생산 약 94%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외신을 통해 확인된다.

희토류 공급망 밸류체인



자료: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대신증권

희토류 공급망 밸류체인. 탐광·채광·제련을 거쳐 영구자석 등 기능성 소재로 가공된 뒤 전기차, 풍력발전, 모터, 통신장비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된다.

/ 출처 = PwC 보고서, B'패권경쟁의 새로운 격전지, 희토류 자원무기화'

희토류는 전기차 구동모터, 풍력터빈, 반도체 장비 모터 등 주요 제조업 전반의 필수 소재다. 포괄허가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출하 일정을 단순화하는 조치이지만, 규제 구조가 유지되는 만큼 전체 공급망은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로이터는 허가 범위는 기업별로 다르며 일부 기업만 일반허가가 적용되고 다른 기업은 기존 개별허가 절차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11월 5일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철회하거나 1년간 중단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다만 이 조치는 특정 업체에 한정된 것으로 보도됐고,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 전반의 규제 체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외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희토류·그래파이트 등 원자재 수급, 중국발 규제 변화, 장비 수출 제한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 성분 변경·모터 내장...중국 기업, 희토류 수출 규제 우회 전략 본격화](#)

[☞ 트럼프·시진핑의 '희토류 휴전', 청정기술에 어떤 영향 미치나](#)

□ CME 장애로 드러난 데이터센터 냉각 취약성...AI 인프라 부담 확대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사 CME 그룹이 11월 27일 밤 통화·상품·국채·주가지수 선물 등 일부 전자거래가 중단되는 장애를 겪었다. CME 그룹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뉴욕상업거래소(NYMEX)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로이터는 이번 사태가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사이러스원이 관리하는 시카고 인근 시설의 냉각 시스템 고장에서 비롯됐으며, 고성능 AI·클라우드 서버가 발생시키는 열을 기존 공랭식만으로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냉각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는 대안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액체냉각(liquid cooling)은 공랭식 대비 최대 3000 배의 열 제거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외부 물 투입 없이 냉각수를 폐쇄회로로 순환시키는 '제로 워터' 데이터센터 설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냉각 설비 수요 확대는 M&A 시장에서도 감지된다. 글로벌 로펌 화이트앤드케이스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최대 40%가 냉각에 사용된다고 분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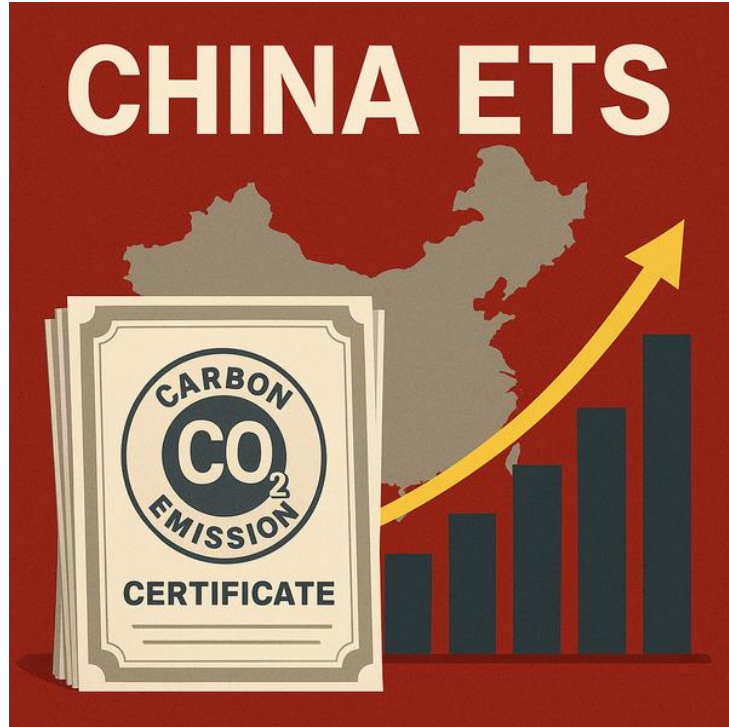
전력관리 기업 이튼은 보이드코퍼레이션의 열관리 사업을 95 억달러에 인수했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버티브는 퍼지라이트 인수를 10 억달러 규모로 추진 중이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AI 산업이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허가(social permission)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전력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소비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때 사회적 수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White & Case - Cooling data centers: Keeping up with emerging technologies](#)

□ 중국 ETS 확대...고배출 산업 규제 강화로 비용 부담 커져

중국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적용 범위를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중후장대 산업으로 확대한 가운데, 탄소 가격이 급등하며 산업 전반에 규제 압력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1 월 20 일(현지시각) 베이징 탄소배출권 가격(CNEA)은 톤당 66.86 위안(약 9.4 달러)으로 치솟으며 하루 새 8% 이상 상승했다. 지난달만 해도 할당량 이월 규제로 공급이 넘쳐 2 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연말 결제와 ETS 확대 발표가 겹치며 가격이 반등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중후장대 산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국 ETS는 단일시장 규모(전체 거래 커버 CO₂ 양) 기준 이미 EU를 넘어 세계 1위이다./ 챗 gpt 생성이미지

중국 ETS는 2021년 발전 부문에서 시작됐으나, 2024년부터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산업이 단계적으로 편입됐다. 2025년 3월 발표된 포괄 방안에 따라 약 1500개 업체가 추가되며 규제 대상은 총 3700여 개로 늘었고, 이들의 연간 배출량은 80억톤 수준으로 중국 전체 배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단일 시장 규모로는 EU ETS를 넘어서는 최대 체계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ETS를 '시행착수 단계(2024~2026년)'와 '심화완비 단계(2027년 이후)'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실제 배출량에 가까운 수준의 할당량을 제공하되, 2027년부터는 부문별 배출 허용 총량(cap)을 설정하고 매년 감축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고배출 업종의 탄소 비용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한 2027년 이후 ETS 적용 대상을 화학·석유화학·항공·제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분석가들은 "중국 ETS의 가격이 수년째 톤당 10달러 수준에 머물러 감축 유인이 부족했다"며, 총량 감축과 유상할당 확대가 탄소 가격 상향 압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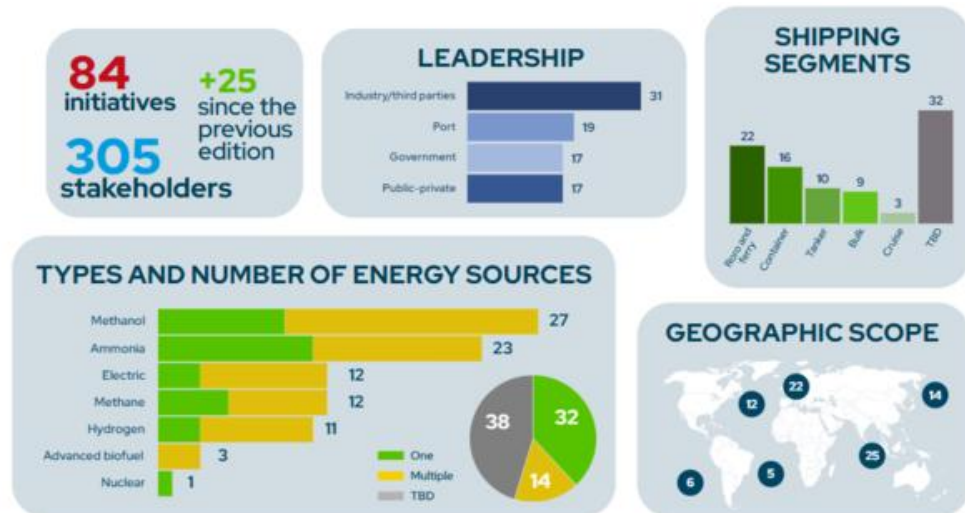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가격위원회가 제시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가격(50~100 달러)에 비하면 아직 낮지만, 규제 수위 변화가 가격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TS 적용 산업이 확대되고 배출량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 철강 기업의 생산비·수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EU CBAM 이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중국 내 탄소 비용 상승은 글로벌 철강 공급망 가격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 중국 ETS, 국가 배출량 60% 규제 체제로 확대...탄소가격 상승 압력 본격화](#)

□ 글로벌 해운 전환, 불확실성 속에서도 브릿지 연료 중심 재편

지난 10 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탈탄소 규제 프레임워크 채택을 1년 유예했지만, 해운업계의 전환 방향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는 11 월 7 일 보도에서 규칙 도입 시점은 늦춰졌으나 COP30 기후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탄소가격제와 연료 집약도 기준 논의가 유지됐다고 보도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그린 쉬핑 코리도는 총 84 개로 전년 대비 25 개 증가했다. 참여 이해관계자는 305 곳으로 확대됐으며, 주도 기관은 민간·항만·정부가 고르게 분포했다. 에너지 유형은 메탄올과 암모니아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항로 적용 지역은 유럽 26 개, 아시아 22 개 등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출처 = Getting to Zero Coalition

글로벌 선사와 조선사가 활용하는 발주 데이터 플랫폼 AXSMarine 집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올해 1~10 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감소했지만 친환경 연료 추진선 비중은 37%를 유지했다. LNG 추진선은 전체 발주의 29%를 차지하며 브릿지 연료로서의 지위를 더 강화했고, 메탄올 추진선은 공급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48%에서 올해 10%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업황 둔화 속에서도 친환경 전환 비중이 유지된 것은 탈탄소 전환이 산업 구조 전반에 확실히 자리잡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글로벌 해운 탈탄소 연합인 Getting to Zero Coalition이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같은 흐름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그린 쉬핑 코리도(저탄소 연료 기반 운항을 위한 항로 단위 전환 프로젝트)는 84 개로 늘었지만, 실제 운항 단계(Realisation stage)에 진입한 사례는 4 개에 그쳤다. 연료 가격 격차로 인한 '실현성 장벽(feasibility wall)'이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묶어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해운 배출 역대 최대...EU, 탄소가격제 확대 압박 직면](#)

[☞ IMO 중기조치 1년 유예, 기회인가 위기인가](#)

[☞ Annual Progress Report on Green Shipping Corridors 2025](#)

『 Editor's Comment 』

규제 유예나 완화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포괄허가 발급, CME 데이터센터 장애, 중국 ETS 확대, IMO 규제 연기 등 표면적 조정이 이어졌지만, 공급망 통제·에너지 인프라 부담·탄소 비용·선박 연료 전환 같은 핵심 문제는 더 강화되는 흐름이다.

단기 규제 일정보다 지정학·전력·탄소·연료 선택 등 구조적 제약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11 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03 자동차

『 Key Takeway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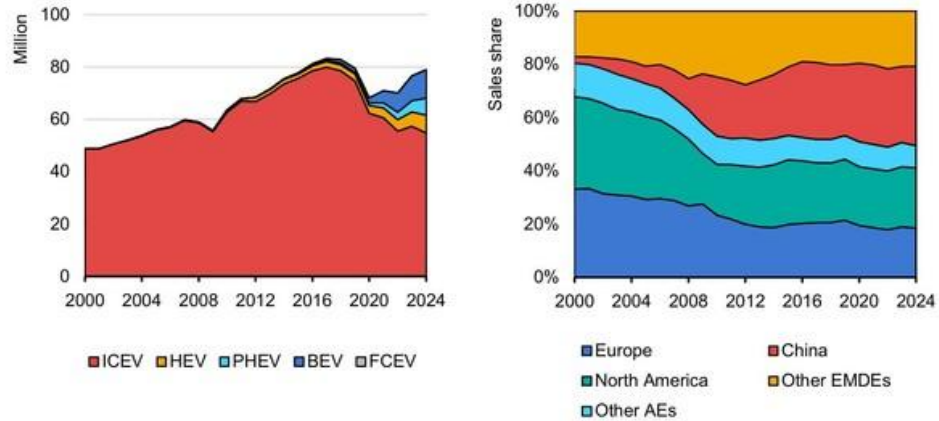
- 독일 부품사들은 수요 부진·비용 부담 위에 중국산 부품의 가격·품질 공세까지 겹치며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까지 중국산 부품 구매를 늘리면서, 유럽 내부의 방어선이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이 단순 무역 이슈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으로 격상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EU가 공급망 리스크를 우려해 중국기업 MMG의 니켈사업 인수를 심층조사로 넘겼으며, 미·중 간 희토류 통제 경쟁으로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 압력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 현대차그룹이 전동화 경쟁의 축을 '차량 성능'에서 '사용 경험'까지 넓히고 있다. 미쉐린과의 타이어 협력을 통해 전기차의 효율·안전·하중 등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제네시스 영국의 '스마트 홈 충전'은 전기차를 둘러싼 충전·요금·설치 등 경험 요소를 브랜드 가치로 끌어왔다.

□ 독일 부품사까지 흔든 중국 저가 공세...유럽, 전기차 격차 좁힐 수 있나

Figure 1.1 Global new car sales by powertrain and region, 2000-2024



IEA, CC BY 4.0.

Notes: ICEV =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HEV =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BEV = battery electric vehicle; FCEV = fuel cell electric vehicle. AEs = advanced economies. EMDEs =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HEV" includes only full hybrid electric cars (FHEV). "ICEV" includes both conventional ICE cars and mild-hybrid electric cars (MHEV), typically featuring 48V hybrid powertrain architecture.

Sources: IEA analysis based on Marklines and EV Volumes.

ICEV(내연기관차), BEV(배터리 전기차),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FHEV(풀 하이브리드차), MHEV(마일드 하이브리드차) 등 동력별·지역별 글로벌 신차 판매 추이 / 이미지 출처 IEA

중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전장부품과 금속 단조품 등이 로버트 보쉬, 말레, PWO 등 독일 주요 부품사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품질 격차가 줄어들면서, PWO 노동이사회 의장 안드레아스 보네르트(안드레아스 보네르트)는 중국산 부품이 속도뿐 아니라 품질 수준에서도 위협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압박은 단기 가격 경쟁을 넘어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크다. 유럽 자동차부품협회(CLEPA)는 설문에서 유럽 부품업체의 70%가 중국산 부품과 직접 경쟁에 직면했다고 밝혔고, 이 흐름이 지속되면 최소 수익성 5%를 유지하기 어려워 생산 이전이나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쉬 노동자 대표 프랑크 셸은 동일 품질 제품을 중국업체에서 20~30%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유럽이 해외 제조업체에 일정 비율의 현지 생산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요·공급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전기차에서 더 선명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이 2010~2024년 자동차 생산을 두 배 이상 늘리며 전 세계

생산능력의 40%를 차지했고, 2024 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의 약 7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배터리 셀 가격은 유럽보다 30% 이상, 미국보다 20% 이상 낮아 특히 배터리 가격 우위가 격차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IEA 는 비용 격차가 고착화된 것만은 아니라는 관점도 제시했다. 공급망 요인이 생산비 차이의 30%를 설명하지만, 나머지 50%는 제조 효율과 자동화 수준의 차이이며, 중국 외 지역도 생산 규모 확대와 경험 축적이 이뤄지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전기차·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유럽이 가격 경쟁력과 생산 효율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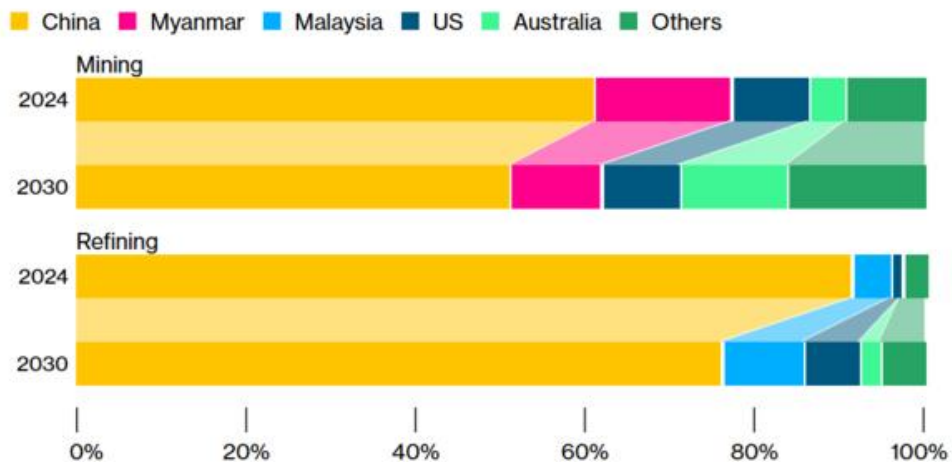
[BYD-CATL 앞세운 중국 공습...독일 자동차·부품 산업 '이중 위기'](#)

[전기차 원가 30% 이상 낮은 중국...IEA "투자 확대되면 격차 줄어"](#)

□ EU 는 니켈 M&A 제동, 미·중은 희토류 협의...자원 공급망이 외교·규제의 한복판으로

China's Rare Earths Dominance Isn't Easing Fast

Projected supply of magnet rare earth elements, by country share



Sourc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Note: Projections based on operating and announced mining and refining projects as of May 2025. Magnet rare earth elements cover praseodymium, neodymium, terbium and dysprosium

2030 년으로 가면서 지배력이 조금 감소한다고는 하나, 현재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 정제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공급망 지배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 이미지 출처 IEA

유럽연합(EU)이 중국계 광산기업 MMG의 브라질 니켈사업 인수에 제동을 걸며 핵심소재 공급망 리스크를 경쟁정책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MMG가 광산기업 앵글로아메리칸의 브라질 니켈사업부를 5억달러(약 72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거래를 두고, 유럽 내 페레니켈(니켈·철 합금) 광물의 공급 차질 우려를 이유로 2단계 심사에 착수했다. 브라질산 니켈은 유럽 스테인리스강 산업의 핵심 원료로, 생산거점의 소유가 중국 국영계열로 이동할 경우 유럽으로 향하던 공급선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거래가 유럽 내 페레니켈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테레사 리베라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페레니켈이 유럽 생산업체의 고품질·저탄소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필수 투입재라는 점을 들어 공급망 안정성 훼손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EU는 내년 3월 20일까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MMG와 앵글로아메리칸은 심층 조사를 피하기 위한 시정안을 제출했으나, '최대 10년간 유럽 공급' 약속만으로는 사업 구조의 본질적 변화가 없어 불충분하다는 게 EU 집행위 판단이었다.

한편 미·중 간 희토류 갈등은 '유예' 형태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을 선언했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1년간 유예됐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대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유예가 곧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진단도 함께 제시됐다. 중국이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 정제의 90%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제·가공 기술 지배력이 여전히 협상 지렛대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 NEF는 정치적 긴장 완화와 별개로 기술 의존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분석했고, 서방 진영은 '비(非)중국'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 EU, 중국계 MMG의 니켈 인수 제동... "핵심소재 공급망 리스크 부각"](#)

[☞ 트럼프·시진핑의 '희토류 휴전', 청정기술에 어떤 영향 미치나](#)

□ 제네시스는 '집에서 충전', 현대차는 '타이어 혁신'...넓어지는 기술 확장



영국 제네시스 모터(Genesis Motor UK)는 현지 최대 가정용 전기차(EV) 충전 기업 '옴(Ohme)'을 독점 파트너로 선정했다./ EV 리포트

현대차그룹이 전동화·자율주행 전환에 맞춰 '차량 밖 경험(충전)'과 '차량 안 성능(타이어)'을 동시에 확장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제네시스는 영국에서 가정용 전기차 충전 분야로 보폭을 넓혔다. 현지 매체 EV 리포트에 따르면 제네시스 모터 UK는 영국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 업체 옴(Ohme)을 독점 파트너로 선정해, 영국 전역 제네시스 고객에게 스마트 충전과 설치·사후관리가 포함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옴의 충전 서비스는 전력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자동 충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시점을 선택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개됐다. 제네시스는 충전기 설치와 요금제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묶어 전기차 구매 과정의 불편 요소로 꼽히는 충전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현대차그룹은 핵심 부품 기술에서도 전기차·자율주행 대응을 강화했다. 현대차그룹과 미쉐린은 25일 차세대 타이어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세 번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3년간 전기차 성능 향상, 낮은 롤링 저항, 가상 개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포함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며, 효율성과 안전성, 프리미엄 전기차용 솔루션, 가상 개발, 스마트그립 기술 등을 공동 연구 분야로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주행 성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적재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차세대 타이어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로 이번 협력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 제네시스, 영국서 '스마트 홈 충전' 진출...EV 경험경제 본격화](#)

[☞현대차그룹·미쉐린, 전기차·자율주행 대응 '차세대 타이어 기술' 3차 개발 협력](#)

『 Editor's Comment』

유럽 시장은 중국의 가격·공급망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對)중국 규제와 관련 산업정책이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전동화 경험의 고도화'가 함께 요구되는 단계로 진입했다. 가격효율성이 개선된 미래에서의 승부처는 통제 가능한 기술·데이터·파트너 생태계를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11 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04 기후테크/순환경제

『 Key Takeways 』

- 폐기물은 급증하는데 수거·재활용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EU 규제 강화가 '순환 서비스'를 시장의 표준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기술·네트워크를 확보한 사업자가 주도권을 쥐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 순환경제는 '재활용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 안정성과 규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데이터·검증 체계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폐배터리는 재활용을 넘어 ESS 로 '전력망 가치'까지 겨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쟁은 탄소 포집 같은 단일 솔루션을 넘어, 전력망·데이터센터의 병목을 건드리는 '소재 혁신'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텍스매트는 구리 의존 리스크를 문제로 끌어올리고, 대체 소재 서사를 피치의 핵심으로 만든 사례로 제시됐다.

□ 전자폐기물 급증·유해폐기물 M&A...EU 규제가 키운 '순환·처리' 시장



인천 송도에 위치한 베올리아 수질분석 및 산업기술교육센터 / 이미지 출처 베올리아 홈페이지

전 세계 전자폐기물(e-waste)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EU 규제 강화와 기업의 순환 전략이 맞물리면서 '폐기물 처리·재사용'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영국 지속가능성 매체 에디에 따르면 세계 전자폐기물 통계 파트너십(GESP)은 2022 년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이 6200 만톤으로 2010 년 대비 82% 늘었다고 집계했다. 반면 2022 년 공식 수거율은 40.6%에 그쳤고, 문서화된 수거·재활용 비중은 22.3%에 불과했다. 유럽환경청(EEA)은 수거센터·운송 인프라 부족으로 불법 투기나 통계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는 순환경제법 아래 전자폐기물 지침 개정을 통해 제조사의 디지털 추적과 확장생산자책임(EPR)을 강화하고, 2030 년까지 수거율 6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전제로 한 구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틀을 넓혔다.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조기 폐기 감소와 자원 순환을 결합한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는 흐름이다.

레노보는 14 개 유럽 시장에서 '레노보 인증 리퍼비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 기기를 회수해 점검·수리·성능 복원을 거쳐 다시 투입하는 방식이며, 데이터 보안 절차와 제조사 인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했고, 램(RAM) 업그레이드 등 성능 보완 옵션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성능이 필요한 업무는 신형 기기로, 일반 업무는 리퍼비시 기기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달 비용과 전자폐기물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는 '유해폐기물·첨단 산업 폐기물' 영역이 대형 인수합병의 무대로 올라섰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기업 베올리아(Veolia)는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 클린 어스(Clean Earth)를 30 억달러(약 4 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클린 어스는 미국 환경청이 허가한 유해폐기물 처리·저장·폐기시설 19곳과 700 건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올리아는 과불화화합물(PFAS) 파괴, 열처리, 액상 폐기물 화학 처리 등과 결합해 반도체·제약 등 첨단 제조 폐기물 처리 역량과 디지털 추적·AI 기반 최적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전자폐기물 6200 만톤 시대...EU 규제 강화에 리퍼비시 시장 '급부상'](#)

[☞ 베올리아, 30 억달러에 '클린 어스' 인수... 美 유해폐기물 시장 2 위 부상](#)

□ 페타이어·페배터리도 끝은 '데이터'...EPR·배터리여권이 부른 자동화 경쟁

미국 시카고 오토메이션 페어에서 규제 대응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이 개별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결국 자동화·데이터·제어 인프라로 수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페타이어를 재생 원료로 전환하는 해중합 공정에서는 '표준 공정'과 '품질 편차 축소'가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볼더 인더스트리즈(Bolder Industries)의 토니 위벨러 창립자는 생산자책임 규정 강화 속에서 규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고, 숙련 인력 부족과 공정 표준 부재로 설비 간 편차가 커 정밀 자동화 없이는 일관된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조사가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EPR)'과, 원료·탄소·재활용 정보 등을 문서로 추적하는 '배터리 여권' 개념을 도식화한 이미지 / ChatGPT 이미지 생성

배터리·광물 공급망에서는 데이터 투명성이 가장 큰 장애물로 제시됐다. 공급망 추적 플랫폼 서큘러(Circular)의 빌 지롤프 상업운영 이사는 EU 배터리 여권 규제로 원자재 출처와 내재 탄소 검증이 사실상 의무화됐지만, 상류 공급업체들이 정보 제공을 꺼리면서 병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수기 기반 회계를 현장 시스템과 연동된 자동 기록 체계로 바꿔 감사 가능한 디지털 기록으로 전환해야 규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추적·검증 수요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사업 확장에서도 확인된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Redwood Materials)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35 억달러(약 4 조 8000 억원)를 투자해 건설한 핵심 광물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신공장은 연간 2 만톤 규모로 니켈·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정제하며, 동시에 폐배터리를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환하는 '레드우드 에너지' 부문을 신설했다.

폐타이어 영역에서도 생산자책임 규제 강화와 데이터 기반 운영이 결합하며 시장 질서가 바뀌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수거량을 허위로 부풀리는 '유령 타이어'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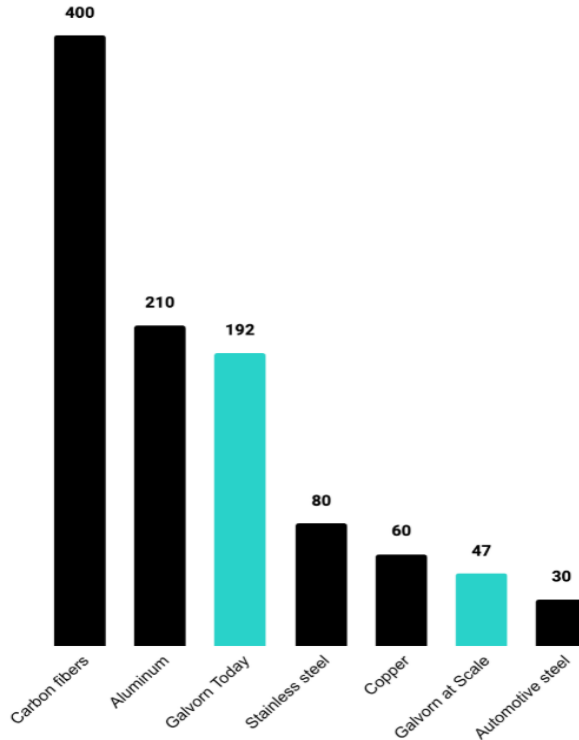
계기로 QR 코드·위치정보·사진 등록과 AI 검증을 묶은 디지털 추적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이트랙스(eTracks)의 eSRP 플랫폼은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전자 문서로 연결해 감사 가능한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며, 온타리오에서 6000 여 거점을 연결해 연간 1300 만개의 타이어 흐름을 관리한다고 소개됐다. 온타리오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코네티컷을 시작으로 타이어 EPR 법제화가 확산되는 흐름이 함께 언급됐다.

- ☞ [수소·페타이어·배터리 공급망이 겪는 같은 문제... '자동화·데이터 인프라'로 수렴](#)
- ☞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폐배터리로 ESS 만든다... 에너지저장 신사업 확장 본격화](#)
- ☞ [AI 로 '버려진 타이어' 추적... 캐나다 eTracks 가 만든 '현실 순환경제'](#)

□ 텍스매트, 구리 대체 기술로 '올해의 기후테크'로...탄소나노튜브 주목

텍스매트(Dexmat)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트렐리스 임팩트(Trellis Impact)' 행사에서 '2025 년 올해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트렐리스가 주최한 스타트업 피치 대회 결과로, 텍스매트는 에너지·탄소·산업·자연·운송 5 개 부문 최종 후보 중 산업 부문 대표로 올라 현장 청중 투표에서 1 위를 차지했다.

텍스매트는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기반 신소재 '갈보른(Galvorn)'을 내세웠다. 갈보른은 고강도·초경량·고전도성을 특징으로 하며 섬유·필름·전선 형태로 제작할 수 있어, 항공우주·전기차·에너지저장 등 분야에서 강철·알루미늄·구리 등을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 기후테크 기업인 부이언트벤처스(Buoyant Ventures)의 알렉스 베하르 파트너는 전력망 업그레이드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구리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텍스매트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내면서도 자원 집약도가 낮은 대체 소재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갤보른이 대량생산(Galvorn at Scale)으로 가면 에너지 집약도가 크게 내려가고(47), 자동차용 강(30) 다음으로 낮은 축에 들어가 생산 부담이 낮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텍스매트는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 텍스매트 홈페이지

트렐리스는 올해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25'에 13 개국 109 개 지원 기업 중 25 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이 총 7 억 5000 만달러(약 1 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트렐리스는 솔루션, 사업 모델, 시장성, 팀 역량, 피치 프레젠테이션 등을 기준으로 최종 후보를 평가·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기후테크 스타트업...탄소나노튜브 혁신으로 주목받은 텍스매트](#)

『 Editor's Comment 』

이번 달 흐름은 순환경제가 결국 데이터와 인프라의 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재활용이든 신소재든, 시장은 규제 대응력과 검증 가능성, 그리고 네트워크 및 데이터 추적성 등 규모화를 갖춘 플레이어에게 더 빠르게 기울고 있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11 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05 식음료

『 Key Takeways 』

- 하우스이 9 만여 개 농업 배출계수를 PACT 표준에 맞춰 공개했다. 탄소 데이터가 이제 매출·비용처럼 관리돼야 할 핵심 비즈니스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 EU 의회가 기업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산림파괴방지법(EUDR) 시행을 1년 연기해 대기업은 2026년 12월, 중소기업은 2027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으며 연기가 규제 신뢰와 산림보호 목표를 약화시킨다고 반발했다.
- 체인징마켓재단이 COP30 개막일에 공개한 '메탄 액션 트래커'는 16개국과 주요 식품·유통기업의 농업 메탄 감축 노력을 비교 평가했다.

□ WBCSD PACT , 전 세계 기업 탄소 데이터 표준 통합...하우굿 첫 농업 부문 합류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주도하는 '탄소 투명성을 위한 파트너십(PACT)'이 기업별 제각각이던 탄소 발자국 계산 방식을 통일하는 글로벌 표준 데이터 포맷을 마련 중이다. P&G, 도요타, 마스터카드 등 100 여 기업이 참여하며, SAP·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표준을 ERP 시스템에 내장해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데이터를 이메일처럼 자동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식품 기업 배출량의 95%가 공급망(Scope 3)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CSRD·SBTi·CDP 보고 강화와 EU 그린 클레임 지침·EUDR 규제가 탄소 라벨·데이터 공개를 필수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은 '데이터 공개 양'에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 품질'로 재정의되고 있으며, 정확한 배출계수 없이는 규제 대응이 불가능해졌다.

BREADTH

Over 90,000 agricultural emission factors

Sustainability insights for companies throughout the food value chain

HowGood sets itself apart with the unparalleled breadth of our database, covering over 30,000 ingredients, chemicals and materials to provide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insights for CPGs, retailers, ingredient vendors, and food service providers. Our extensive coverage includes data for raw materials and processed ingredients not commonly available in emissions databases, ensuring that we deliver accurate and relevant information for the unique needs of food companies across the supply system.

COMPANY TYPE	Suppliers	CPGs	Retailers	Food
APPLICABLE ANALYSIS LEVEL	RAW MATERIALS & INGREDIENTS	INGREDIENTS & PRODUCTS	PRODUCTS & CATEGORIES	MENU ITEMS

Comprehensive approach to sustainability strategy

While the food industry has grown more aware of their impact on greenhouse gas emissions, HowGood remains committed to helping companies measure and manage their impact across a diverse and comprehensive set of metrics. This approach enables Sustainability, R&D, and Procurement teams to be working hand-in-hand to ensure comprehensive target-setting and impact communications across factors ranging from water usage to biodiversity to animal welfare, among others.

미국 데이터 플랫폼 하우굿은 9 만여개 농업 배출계수를 공개하고 있다./ 출처: 하우굿 홈페이지

미국 지속가능성 데이터 플랫폼 하우굿(HowGood)이 세계 최대 농업 배출 데이터베이스 9 만여 개 배출계수를 PACT 사양에 맞춰 공개하며 식품·농업 부문 첫 합류를 알렸다. 하우굿의 고객사 미국 대형 유통그룹 아홀드 델하이즈(Ahold Delhaize)은 이를 활용해 공급망 배출을 정밀 측정하고 저탄소 제품을 식별 중이며, WBCSD 는 중국·일본 등 아시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우굿의 최고제품책임자 니나 드팔마(Nina DePalma)는 "PACT 는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기업의 핵심 경영 지표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제 지속가능성 데이터도 매출, 비용, 재고처럼 IT 시스템이 관리해야 할 '비즈니스 데이터'가 됐다"고 말했다.

[Partnership for Carbon Transparency \(PACT\) | WBCSD](#)

[Sustainability Intelligence for Food Companies](#)

[탄소데이터도 회계처럼...글로벌 식품산업 PACT 표준 도입 확산](#)

□ 시행 1년 연기 결정...네슬레·페레로 등 '산림보호 목표 후퇴' 반발

유럽의회가 2025년 11월 26일 EU 산림파괴방지법(EUDR) 시행을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중소·마이크로 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소·코코아·팜유 등 산림파괴 연관 원자재 수입에 실사와 신고를 시작한다. 기업 부담과 IT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적용 시점을 조정했다.

이번 연기에 대해 네슬레(Nestlé), 페레로(Ferrero), 올람 애그리(Olam Agri) 등 일부 기업은 반대 입장을 냈다. 주요 농식품 기업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예시카 로스웰(Jessika Roswall)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자사와 공급망 파트너들이 원래 일정(2025년 말) 준수를 전제로 시스템과 실사 준비에 투자해 왔다고 밝히며 추가 연기가 규제 신뢰와 산림보호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절차는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관 간 3자 협상(트릴로그, trilogue) 형태로 최종 문안을 조율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연기 여부와 함께, 실사 절차를 얼마나 단순화할지,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지가 최종안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Nestle, others warn EU law delays are endangering forests worldwide | Reuters](#)

[European Parliament supports year-long deforestation law delay | Reuters](#)

□ 체인징마켓재단, COP30 서 '메탄 액션 트래커' 공개...다논 최고점, 다수 기업 감축 노력 미흡

COP30 개막일인 2025 년 11 월 10 일, 체인징마켓재단(Changing Markets Foundation)이 농업 메탄 배출 감축 노력을 추적하는 도구인 '메탄 액션 트래커(Methane Action Tracker)'를 공개했다. 이 도구는 지도·점수표·순위를 통해 고가·유제품 생산·소비 비중이 큰 16 개국과 유럽연합(EU), 낙농·커피 브랜드 23 곳, 슈퍼마켓 20 곳의 대응을 비교했다. 체인징마켓재단은 COP30 농업 의제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원스톱' 형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통사 부문에서 테스코 제외하고 점수 50% 이하이다./ 출처: Methane Action Tracker 홈페이지

평가 결과를 보면 기업 부문에서는 다논(Danone)이 62.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통사 부문에서는 테스코(Tesco)만 50%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체인징마켓재단은 밝혔다.

낙농·커피 기업 평가에서는 '의미 있는' 메탄 감축을 보고한 곳이 4 곳(다논, 벨 그룹, 크래프트 하인즈, 네슬레)에 그쳤다. 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네슬레(Nestlé)는 낙농 메탄 행동연합(DMAA, Dairy Methane Action Alliance)에서 탈퇴했으며, 체인징마켓재단은 이를 두고 메탄 감축 공약의 진정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슈퍼마켓 평가에서는 20 곳 중 12 곳(월마트, 르클레르, 메르카도나 등)이 25% 미만

점수를 받았다. 체인징마켓재단은 이들 기업이 메탄 배출 보고와 대체단백 제공 등에서 뒤처졌다고 설명했다. 체인징마켓재단 최고경영자 누사 우르반치치(Nusa Urbancic)는 “농업을 더 이상 예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COP30 개최국 브라질 정부에 강제 목표 설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New Methane Action Tracker puts agricultural methane emissions under the spotlight as COP30 opens • Changing Markets](#)
[Home | Methane Action Tracker](#)

「 Editor's Comment 」

EU와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 데이터, 감축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 기준을 '실행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EUDR 시행 연기, PACT의 데이터 표준화, 메탄 감축 평가 도입은 모두 투명한 공급망 관리와 검증 가능한 성과를 요구하는 흐름이다. 이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경쟁력은 보고의 '양'이 아니라 데이터 품질과 이행 신뢰성으로 옮겨가고 있다.